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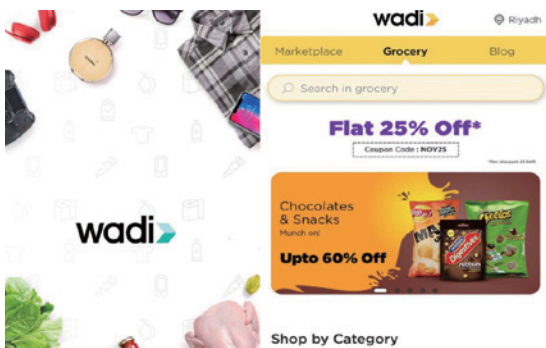
마지드 알푸타임 그룹, 온라인 식료품시장 공략

두바이지사

온라인스토어로 세력 확장중인 마지드 알푸타임

- 슈퍼마켓 운영을 여러 사업 중의 하나로 하고 있으며 두바이에 기반을 둔 마지드 알푸타임 그룹(Majid Al-Futtaim; MAF)은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이커머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온라인스토어 와디 그로서리(Wadi Grocery)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로써, 현재 중동 내에서 마지드 알푸타임 그룹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까르푸는 와디 그로서리에 12,000여 개의 식료품과 그 외의 여러 제품들을 공급하게 될 예정이다.
- 또한 이커머스 플랫폼 성장을 돕기 위해 마지드 알푸타임 그룹은 와디 그로서리를 운영하는 와디그룹에 3천만 달러(약 336억 원)를 투자했다. 까르푸의 COO 에르브 마지디어(Herve Majider)는 이 모든 투자액이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와디 그로서리가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는 데에 쓰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새로운 유통채널,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격한 성장



와디 그로서리 어플

- 사우디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시장은 사우디의 스마트폰 소유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인 시장이다. 사우디에서 인터넷 쇼핑몰의 선두주자는 Souq.com으로 2014년에만 약 7,500만 달러(약 842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했으며, 그 뒤를 쫓고 있는 Namshi는 약 3,300만 달러(약 370억 원) 가까이 유치하는 등 온라인 쇼핑몰이 급격하게 부상하고 있다.
- 이번 마지드 알푸타임 그룹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와디그룹의 wadi.com은 2015년 초에 본격적인 영업을 개시했으며, 자본을 갖춘 wadi.com의 인터넷 쇼핑업 진출은 시장에 강한 경쟁체제를 구축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Amazon.com, Souq.com, Namshi, 그리고 신규 업체인 wadi.com과 같은 온라인 소매업체들은 모두 자체적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으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시장에 적극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시장 성장을 촉진시키고 있다

온라인 마케팅 주목해야

- 일상적으로 오프라인에서의 상품구매를 선호했던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그중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시장의 성장세는 주요도시부터 시작해 점차 서비스를 늘려나가는 추세이므로 한국 식품 기업들도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유통 및 마케팅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